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28(금) ~ 2023.08.03(목)

제공일시 2023 08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28(금) ~ 2023.08.03(목)

제공일시 2023 08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광물 심해 채굴 지연...유엔, 내년 이후 허용할지 결정

- 심해에서 광물을 채취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ISA)가 이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음
- 이에 따라, 태평양의 클라리온 클리퍼톤 존(CCZ, Clarion Clipperton Zone)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ISA가 지난 10~21일 36개 이사국 이사회 회의와 24~28일 회원국(유럽연합 포함 168개국) 총회를 열어 2024년까지 채굴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음
- ISA는 잠정적으로 2025년에는 심해 광물 개발에 필요한 국제적인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 채굴 작업 계획 신청서가 들어오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8.01) 국기연 특파원

2. IASB, 지속가능성 보고 보증표준 출시

- 국제 감사 및 보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제3자 보증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SA 5000 출시를 발표했다
- 새로운 표준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공시 기준들이 생겨남에 따라, EU의 최근 확정된 CSRD 규칙, 미국 SEC의 다가오는 기후공개규칙, ISSB 표준 등에 발맞춰 만들어졌음
- 지금까지 제3자 보증으로는 AA1000과 ISAE3000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관련된 보증 표준 또한 업그레이드되는 것임
- IAASB는 제 3자 보증 표준에 대해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12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받을 예정임

(ESGToday, 2023.08.02) Mark Segal 기자

3. 미, 자동차 연비 기준 상향 추진...2032년 L당 24.6km

- 미국 연방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연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비 기준 상향 조정에 나서기로 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28일(이하 현지시간) 2027~2032년형 신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지금은 2026년형 자동차의 경우, 갤런당 49마일(L당 20.8km)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준이 바뀌면, 2032년형 모델은 갤런당 58마일(L당 24.6km)로 약 18% 넘게 연비를 높여야 함
- NHTSA는 새 연비기준이 확정돼 실행되면, 2050년까지 소비자들의 연료비 지출은 모두 500억달러(약 63조8700억원) 절약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90억t 이상 줄어든 것으로 기대했음

(파이낸셜뉴스, 2023.07.29) 송경재 기자

1. 녹색산업 협의체 참여기업 확대...올해 목표 20조원 수주

-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출범한 '녹색산업 협의체'의 참여기업이 확대됨
-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와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음
- 환경부는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1500억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냈다"고 했음
- 환경부는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들과 8월 중순 녹색산업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며 하반기엔 1대 1 전략회의를 열어, 기존·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아주경제, 2023.07.31\) 신진영 기자](#)
[\(아시아투데이, 2023.07.31\) 이정연 기자](#)

2.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 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음
-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함
-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음
-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됨

[\(이투데이, 2023.08.03\) 노승길 기자](#)

3. 세계 첫 '수소발전 입찰' 경쟁률 6대1 육박...수소경제 빨라진다

-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8일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경쟁입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음
- 이번 입찰 경쟁률은 물량기준으로 5.9대로, 첫 경쟁 입찰에서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입찰 물량의 6배에 육박하는 물량을 제시했음
- 특히,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들은 40MW 이하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다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관측됨
-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달 안에 올 하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내년에는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2년 안에 상업운전을 시작해야 함에 따라 2025년부터 수소로 생산한 전기가 공급될 전망이다

[\(전자신문, 2023.08.03\) 변상근 기자](#)

1. 글로벌 칩 제조기업들, 인도에 패키징 공장 건설 검토

- 글로벌 칩 제조기업들이 패키징 공장 건설을 위해 인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 지난 6월 마이크론은 구자라트에 27억5000만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인도 정부는 칩 설계 계획을 위해, 약 12억7000만달러(약 1조6700억원)를 따로 책정하고 약 113만 달러 한도 내에서 신생 기업에 발생한 디자인 관련 지출의 50%를 지원할 예정임
- 한편, 일각에서는 반도체 칩 제조에 인도가 사실상 기술이 전무하고, 관련 일을 해 본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인도 반도체 제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7.31) 박정환 기자

2. 테슬라, 전기트럭 충전소 설립 추진...美정부에 1300억 지원 요청

- 전기트럭 '세미'를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가 미 텍사스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어지는 수송로에 전기트럭 전용 충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미 정부에 제출하고, 보조금 9700만달러(약 1252억원)를 요청했음
- 테슬라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2400만달러(약 309억원)의 개발 기금을 기부하겠다는 방침임
- 테슬라는 이 지역에 충전소가 여러 개 설치되면, 전기트럭 충전의 편의성을 높이는 선진적 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미 최초 전기트럭 충전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며, "텍사스에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로 이어지는 장거리 전기트럭 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데일리, 2023.08.02) 방성훈 기자

3. 글로벌 식료품회사 크래프트 하인즈, 포장에서 1억파운드 플라스틱 제거

- 크래프트하인즈는 지속가능한 포장옵션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버진 플라스틱(신상 플라스틱) 사용을 20% 줄이겠다고 약속했음
- 이 회사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가능한 포장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크래프트 하인즈는 최근 영국에서 플라스틱 수축 포장을 대체할 '친환경 멀티팩 종이판 슬리브'를 출시했음
- 이에 더해 2025년까지 토마토 케첩 제품에 사용될 나무펄프로 만든 종이기반 병을 개발하기 위해 '펄펙스(Pulpex)'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ESGToday, 2023.08.01) Emily Fowler 기자

1. SK E&S, 환경부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논의

- SK E&S가 올해 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상업가동을 앞두고, 환경부와 액화수소 기반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계획을 점검했음 (뉴시스, 2023.08.02) 이다솔 기자
- SK E&S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일 90톤, 연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를 건설 중이며, 시운전 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임
-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는 액화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용 연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SK E&S는 액화수소 생산 개시 시점에 맞춰, 전국 주요 지역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 중임
- SK E&S와 환경부는 액화수소 생산부터 유통 기반 마련,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내 수소 생태계 조기 구축에 앞장 서겠다는 취지임.

2. 현대차·기아,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자동화

- 현대차·기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협력사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하 SCEMS)을 구축하고, 공급망 대상의 탄소감축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음 (오토타임즈, 2023.07.28) 김성환 기자
- 현대차·기아는 SCEMS를 자동차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배포,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지원함
- 협력사가 각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필수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탄소 배출량과 향후 발생될 예측치 정보를 제공함
- 또 전문 인력이 없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탄소발자국 산출이 가능했던 협력사들도 자체 목표 설정과 저감 활동 관리가 가능함

3. 한화에어로, 한화오션과 'MWh급' ESS 개발...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 속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과 함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메가와트시(MWh)급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음 (해럴드경제, 2023.08.03) 한영대 기자
- 기존 내연기관과 ESS를 연동한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은 선박에 적용하면 운항 시 연료를 절감하고 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임
-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용 ESS 시장은 2021년 약 21억달러(약 3조원)에서 2030년 약 76억달러(약 10조원)로 연평균 15.5%의 성장이 예상됨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7.28(금) ~ 2023.08.03(목)

제공일시 2023 08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CCS 프로젝트에 수백억 투자 계획 발표

-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인프라에 200억 파운드(약 33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가디언이 보도했음
-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인 셸, 하버 에너지(Harbour Energy)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합작 투자해 스코틀랜드 산업 클러스터에 있는 CCS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임
- 일명 에이콘(Acorn) 프로젝트로, 스코틀랜드 세인트 퍼거스 가스 터미널에 있는 기존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통해 탄소를 운송하고 북해 가스전 중 하나에 영구 저장함
- 영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이며, 스코틀랜드에 2만 1000개, 2030년까지 영국 내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에이콘 프로젝트 개발사인 스토레가(Storegga)는 수낙 총리가 허가를 발표하는 즉시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음
- 수낙 총리는 “탄소 포집 및 저장 산업이 영국이 에너지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스코틀랜드 환경부 장관 닐 그레이(Neil Gray)는 “우리는 스코틀랜드에 탄소 포집 저장소를 건설할 것을 10년 넘게 영국 정부에 촉구해 왔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스코틀랜드가 에너지 전환의 선두자임을 영국 정부가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음
- 한편, 영국 총리의 CCS 프로젝트 투자 발표 이후, 정계와 각종 비영리단체들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음. CCS 기술에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영국 정부가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시추 면허를 허용한 이상,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기 때문임
- 수낙 총리는 탄소 포집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면허를 추가로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정부가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을 허가한다면 올 가을부터 100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는 CCS 프로젝트를 두고 “불에 연료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음. CCS 기술은 석유 및 가스 업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추는 핑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 환경 단체와 자선단체들도 북해의 새로운 시추 계획을 반대했음. 옥스팜 기후변화 정책 고문 린제이 월시(Lyndsay Walsh)는 “위선적이고 일관성 없는 기후 정책”이라고 말했고, 그린피스는 이번 발표를 “분열을 조장하는 냉소적인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했음
- 하지만 수낙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반박했음. 나아가 그는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지라도 에너지 수요의 4분의 1은 석유와 가스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CCS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탄소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음
- 수낙 총리는 중공업의 추가 배출량을 허용해 예상만큼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영국의 탄소 가격은 유럽에 비해 가파른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기 때문임
- 산업 그룹 Energy UK의 부국장 아담 버먼은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외에도 탄소 가격을 높여 산업계 전체가 탄소 포집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인팩트윤, 2023.08.03) 김환이 기자